

군산시보건소, 내달 2일
금연클리닉 · 건강상담 실시

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는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일정별로 금연아파트 주민 및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및 건강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클리닉 상담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3개소(나운동 현대3차, 지곡동 해나지오, 현대메코아파트)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혈압, 혈당 등 기초건강검진과 흡연자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의존도 검사, 니코틴 보조제 사용법 등을 알려주며, 금연구역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의 금연슬로건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임에 이르게 합니다'처럼 흡연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연 홍보와 함께 다양한 금연프로그램 및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장대, 취업연계프로그램
위그선 교육 훈련생 모집

군장대학교(총장 이승우)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원 손잡고 취업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8일 군장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수면비행선박 정비사 운영관리사 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물위를 나르는 배로 불리는 위그선 운영을 위한 정비 및 관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이 사업은 교육을 마친과 동시에 취업하게 되며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교육 대상자는 군산지역 거주자에 한정하며 4년제 및 2년제 대학의 졸업 예정자나 고교 3학년 재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위그선의 생산과 정비 분야의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인출형시 안전 확보를 위한 관제, 항로선정 등 서비스 요원도 길러낸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상수도 행정, 서비스 제공에 박차

생활민원인 경우 시민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해... 민원 일일처리시스템 구축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 정수장에서 수송가까지 공급과정 점검 · 수도꼭지 수질검사 실시

익산시 상수도과가 상수도 공급업 성장을 다짐하는 등 상수도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9개소, 3.1km)를 통한 유수율 제고사업과 급수배수관(82개소, 5.2km) 개선공사 추진 등이다. 특히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한 정수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더불어 급수장치 수선 748건, 수송가 누수탐사 1,057건,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36개소 등 상수도 생활민원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했다. 한편 하반기에도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추진(15개소), 석불사거리에서 남산사거리 간 배수관 공사(D 400mm,

638km) 완료 및 북부권의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배수지 확장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완료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졌다. 하지만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급수불량, 욕내 누수, 적수발생, 수돗물 수질이상, 수도요금 관련 등 생활민원의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한 대응

과 처리를 하였으나 시민들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 직원 친절교육 강화를 통해 민원인에 대한 친절함을 최우선으로 민원 발생에서 처리까지 하루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민원 일일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자체 생산하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관리 강화 및 정수장에서 수송가까지 공급하는 과정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기 위해 44개소의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매일 시 홈페이지(<http://www.ksan.gok.kr>)에 공개하는 등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홍진 상수도과장은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하여 신뢰받고 사랑받는 상수도 공급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 '청년창업플랫폼' 운영

도시재생 선도 지역 내 재생사업 일환

군산시가 도시재생 선도 지역 내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플랫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가팀 선정은 서류 심사 후 면접 및 매뉴얼현회를 거쳐 진행됐으며 선정된 참가팀은 임차료 부담 없이 기본 주방시설 및 인테리어 등이 갖춰진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선정된 참가팀은 '타

우너스'라는 이름으로 3개월 동안 스페셜티 커피, 한식, 백반, 스페셜 요리를 1개월씩 판매할 예정으로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동태문 도시재생과장은 "청년창업플랫폼의 실습형 창업지원이 성공적인 청년창업을 이기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창업플랫폼 사업은 외식창업을 꿈꾸는 예비청년창업자



군산시가 도시재생 선도 지역 내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플랫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기간연장 가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 시 최대 6개월까지) 실제 사업장 하기 위한 사업이다. 운영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역 /익산=김정훈기자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나선다

익산시, 사업장 계도활동

익산시가 오는 7월부터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 익산지역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업·목욕장업·대규모 점포·도소매업 등 총 2만3천여 곳이 있다. 이번 집중 홍보 및 계도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8월부터는 1회용컵을 사용하거나 1회용 비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익산시는 관공서가 순선수범으로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지침을 마련하여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행사 진행시 1회용품 사용을 적극 억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 및 온라인쇼핑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와 불필요한 과대포장 관행으로 1회용품과 포장 폐기물 발생이 급증하여 시민 스스로가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자"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목천동 도시가스 공급 개시

총 공사비 보조금 4억700만원 추가 투입

익산시가 속원사업인 목천동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2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까지 전북에너지서비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지역주민대표 등과 함께 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협의를 진행,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곳 한스빌아파트 746세대, 원주아파트 222세대 등 총 968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해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총 공사비는 시 보조금 4억원을 포함, 도시가스 공급사인 전북에너지서비스 및 주민(1H공사 포함) 부담금 등 약 12억원이 투자됐다. 아울러 익산시는 올해 추가로 4억 7백만원의 보조금 예산을 투입해 단독, 다세대, 연립 주택 등 249세대를

대상으로 세대 당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2백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 연말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설비 우수화 청정에너지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등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까지 8억 1,300만원의 보조금 사업으로 1,044가구에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완료했으며 익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73.1%(전북지역 70.4%, 전국 80.9%)이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전국체전 준비상황 보고회

정현을 익산시장이 주재하는 2018 전국(장애인)체전 준비상황 점검 보고회'가 익산교육지원청과 익산경찰서, 익산소방서, 익산시체육회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날 준비상황 점검 보고회는 전국체전담당관의 총괄 보고에 이어 부서 및 기관별 추진상황 설명 등으로 진행됐으며, 주요사항인 개·폐회식 당일 주요인사 의견, 체전 홍보, 문화행사, 자원봉사 선발 및 운영, 해외홍보 선수단 환경, 경기장시설 개보수, 도심환경정비,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전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익산시는 스포츠경기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제전을 만들기 위해 한국문화예술대전, 대한민국 농악축제, 전라예술제, 익산예술제, 유병작가 그림 전시전, 기발축제, 천민송이 국화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연계, 익산시를

찾는 선수와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체전을 만들 계획이다. 보고회를 마친 이후에는 현재 95%의 공정률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주경기장을 둘러보며 인제체전의 성공 개최 의지를 다졌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전국(장애인)체전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익산시를 중심으로 준비상황 점검을 통해 완벽한 대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3,800명(전국체전 2,200명, 장애인체전 1,600명)을 7월 10일까지 모집 중으로 신청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자 홈페이지(www.jl365.or.kr)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전북자원봉사센터와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익산=우병희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